

# ‘동국대-중앙승가대 통합’ 파격 제안

## 동국대 불교대학 발전위 첫 공청회 주요내용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불교종립대학의 위상에 걸맞은 위치를 확보하고 나아가 불교인재양성의 산실로 자리잡기 위해 불교대학이 나아가야 할 좌표는 무엇일까.

동국대 불교대학발전위원회(위원장 영담)가 불교대학의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 4월 8일 동국대 덕암세미나실에서 연 공청회에서는 그 방안으로 △중립불교대학으로서의 종교성 강화 △동국대-중앙승가대 통합 △불교대학의 대학원 중심체제 개편 등이 제기됐다.

이날 공청회에서 발제는 ‘동국대 불교대학의 교육목표’를 주제로 학담 스님(조계종 중앙총회의원)과 이평래 교수(중앙승가대)가 맡았으며, 중앙승가대 교수 정인 스님(중앙승가대 교수)·각목 스님(화엄학림 강사), 동국대 조용길 교수(동국대)·유승무 교수(중앙승가대)가 논평자로 나섰다.

불교대학발전위는 앞으로 4차례 걸친 공청회를 통해 침체된 불교대학을 혁신하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 할 계획이다. 공청회 내용을 요약한다.

### ●발제 - 학담 스님

‘한국불교대학의 교육과제와 출가수행자의 길’이라는 주제를 발표한 학담 스님은 ‘수행’ ‘교학’ ‘전법’의 관점에서 출가자 재학생들의 교육목표를 제시했다.

동국대 불교대학 출가자 교육의 가장 큰 문제로 현대식 대학교육 틀 속에서 교학과 수행의 괴리 문제를 지적했다. ‘흰두’ 같은 비불교적 세계관을 배우고도 부처님의 근본법을 배웠다고 우기거나, 좌선위주의 앉음만이 수행이라고 주장하는 등의 어리석음이 팽배하다는 것이다.

### 이여 학담 스님은 ‘출가수행자의 교육목표’로 △2600년 불교사를 통괄하는 실천적 종지를 새롭게 수립하고 △현대교육 특성 살린 교학이론 연찬 △한문과 외국어 강독 능력 배가 △수행실수, 율장 학습의 보완교육 △방학 중 수행실수, 포교실수의 필수교과로 채택 등을 강력히 주장했다.

### ●발제 - 이평래 교수

동국대 불교대학 동문인 이평래 교수는 현재의 동국대 불교대학은 종교계 대학이라기보다 일반대학의 모습을 띠고 있다고

비판하고, 천주교 기독교 이슬람계통의 대학들처럼 동국대 불교대학의 종교성 강화를 제일 먼저 주문했다. 대구가톨릭대, 감신대, 원광대 등 종교계 대학들의 설립 이념이 자기 종교의 성직자 배출과 교리적 뿌리를 공고히 하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국대-중앙승가대 통합’이라는 파격적 제안도 내놴. 두 학교가 통합할 경우 동국대는 효율적 승려 양성과 재가자 진로

한 논평을 맡은 정인·각목 스님은 공통적으로 동국대 불교대학을 대학원 중심 대학으로 개편할 것을 주장했다. 중립 불교대학의 상징성에 걸맞게 승가교육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유승무 교수는 동국대와 중앙승가대의 통합 주장에 ‘정치적 결단’과 ‘정책적 선택’이 필요한 문제라는 입장을 보였다.

## 출가자 교육 ‘수행-교학-전법’ 체계 갖춰야

## ‘설립 이념에 걸맞은 종교 특성 살리자’ 공감

## 대학원 중심으로 개편...종단 필요인력 양성을

교육을, 중앙승가대는 재정, 역사, 규모의 확대를 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불교대학의 재가자 교육목표 구현을 위해 △일본 조동종처럼 종단이 필요로 하는 인력양성 △승의교육 강화 △변화된 사회와 종단환경에 맞게 교과과정 혁신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 ●논평 - 정인·각목 스님

이날 공청회에서 학담 스님의 발제에 대

한런 조용길 교수는 불교대학의 정체성이 약화된 것은 종단-재단-학교의 제주체가 무관심과 안일하게 방치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또 전법사, 포교사, 교수요원을 비롯해 25개 교구 본사를 비롯한 각 전국 사찰 조직에 체계적인 인재 채용 시스템에 갖춰지지 않은 한 불교대학 졸업생들의 구직난 문제는 요원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 4월20일 장애인과 하나되는 날

## 불교계 복지관, 장애예방홍보 등 행사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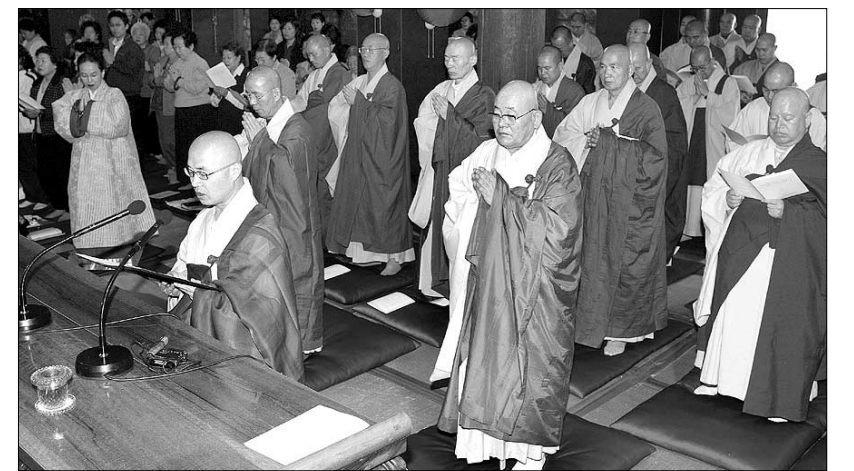
4월 20일은 제25회 ‘장애인의 날’.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을 불식시키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 불교계 장애인 복지관이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경북 구미시장애인복지관(관장 갈수)과 광주 광산장애인복지관(관장 정민숙)은 ‘장애인의 날’을 일주일 앞 둔 4월 13일부터 ‘장애인 주간’을 마련해 장애인 문제를 알리는 거리 홍보는 물론 인근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장애예방홍보 캠페인’을 벌인다. 경북 영주장애인복지관(관장 법라도)도 19일 장애인들과 지역 주민 등 2000여 명이 모이는 대규모 거리캠페인을 열고 ‘장애인 문제 알리기’ 홍보에 나선다.

강원도 강릉장애인복지관(관장)과 서울 강북장애인복지관(관장 명광)은 각각 개관 2주년, 7주년을 맞는 4월 15일에 기념행사와 함께 장애인들과 하나가 되는 ‘어울림 한마당’을 마련한다.

이밖에 장애아동들의 보금자리 상락원(원장 지웅)은 ‘장애인의 날’ 아동들이 좋아하는 능동 어린이대공원 나들이에 나서고, 서울 도봉서원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과에서는 4월 19일 장애체험 마당과 함께 영화 ‘말아톤’을 무료 상영하는 ‘함께 걸어 가는 말아톤’ 프로그램을 준비해 장애인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된다.

김강진 기자



조계종 종단 개혁 11주년 기념법회에서 참석자들이 당시의 개혁정신을 기리고 있다.

사진=박재원 기자

# 불국사 골프연습장 없앤다

## 문화재청 원상복구 명령

불법 건축물로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불국사 골프연습장이 조만간 철거될 것으로 보인다.

불국사(주지 총상)는 4월 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문화재청과 경주시청 원상복구 명령이 도착하는대로 곧 철거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불교환경연대와 참여불교제가연대, 문화연대 등은 4월 6일 기자회견 등을 통해 △골프연습장을 즉시 철거 △핵심 입자와 관련된 골프연습장에 대해 철거, 원상복구하도록 경북도와 경주시에 조치했다”고 4월 4일 밝혔다.

골프연습장은 불국사가 2년 전 건설한 것으로, 세계문화유산이며 사적 및 명승1

호인 불국사 경계에서 100여m 떨어진 곳에 있다.

유철주 기자

### 국제종교자유 실태 세미나

#### 재가연대, 29일 우리함께회관

참여불교재가연대 종교자유정책연구원(준비위원장 박광서, 이하 연구원)이 개원 준비 세미나를 개최한다.

‘국제종교자유 실태와 정책동향’을 주제로 4월 29일 오후 4시부터 우리함께회관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특히 주요 국가의 종교자유 실태와 정책동향을 살펴볼 예정이다.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세미나에서는 한국종교문화연구원 이진구 박사와 한양대 박규태 교수, 한국의 대 류경희 교수가 각각 ‘미국과 유럽의 사례’, ‘일본의 사례’, ‘인도의 사례’를 발표한다.

유철주 기자

###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

#### 공사비리 의혹 공방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 공사와 관련, 중앙총회의원들 간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중앙총회 재정분과위원장 장적 스님은 6일 기자회견에서 “총회 재정분과위에서 총분한 감사를 했다. 필요하다면 투명한 재정 집행을 위해 의혹을 제기한 스님들을 포함한 객관적 인사들을 참여하는 상임집행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중앙총회의원 영담 스님은 7일 기자회견에서 “중요한 것은 진실을 밝혀 삼보정재의 낭비를 막는 것이다. 그동안 제기한 내용들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확인할 것을 총무원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영담 스님은 불교중앙박물관 건립과정의 입찰 부정, 공사비 과다 계상 등의 의혹을 제166회 총회 이후부터 제기해왔으며, 총무원 집행부는 3월 31일 의혹이 있다면 철저히 조사해 공자하겠다고 발표했다.

남동우·조용수 기자

### 정도회 산립훼손 사과성명

#### 문경 수련원 건립과정 물의

문경 수련원 건립과 관련해 ‘환경파괴’ 논란을 일으켰던 정도회(대표 유수)가 대국민 사과성명을 발표했다.

정도회는 4월 2일 발표한 사과문을 통해 “정도농장의 우랑농지조성과 정도수련원의 부지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전용과 산림훼손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국민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며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할 시민단체가 마을 주민의 민원까지 발생하게 한데 대해서도 사과드립니다”고 거듭 사과의 뜻을 밝혔다.

정도회는 또 “앞으로 법질서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은 정도농장의 대표인 법륜 스님이 책임지고 받겠으며, 훼손부분은 행정관청의 지시에 따라 원상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정도회는 문경수련원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일부 불법사실이 확인돼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며, 최근에는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유철주 기자

# “종단개혁 정신과 자세로 돌아가자”

## 조계종 11주년 기념법회

조계종 개혁종단이 출범하게 된 직접적 계기가 됐던 4·10 승려대회를 앞두고 종단 개혁 11주년 기념법회가 4월 8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행됐다.

법회에서 총무원장 법장 스님(94년 당시 개혁회의 중무행정위원장)은 기념법어를 통해 “다시 한 번 개혁불사 당시의 자세와 정신으로 돌아가자”며 “종단개혁 의의와 그 정신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어떻게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할 것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되돌아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총회의장 법등 스님(당시 개혁회의 법사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앞으로 10년은 안으로는 부처님 법에 대한 바른 이해와 안목을 확고히 하고 밖으로는 불교 본래 정신과 가치를 회복시키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회에는 교육원장 정화·포교원장 도

영 스님과 중앙총회의원 일련·장주·원택, 당시 중앙승가대 학생회장이었던 금강(해남 미항사 주지) 스님 등 2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남동우 기자

### 환경연대 불교생태학교

#### 23~24일 내소사서

올해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수경)의 역점사업인 ‘불교생태학교’가 4월 23~24일 부산 내소사에서의 첫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한다.

환경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몸소 체험하고 사찰 생태 현장을 둘러보기 위해 마련된 불교생태학교는 내소사에서 진행되는 불생태학교 외에도 여주 신록사 여름생태학교(7월 26~28일), 화성 수도암 가을생태학교(10월 22~23일), 서산 부석사 겨울생태학교(2006년 1월 7~8일)등으로 이어진다.

유철주 기자

## 奉行

### 崔諸空 德昊 禪師 副宗正 推戴 法會

상보전에 귀의하옵고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항상 충만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한불교조동종 부총정 諸空 德昊  
선사님의 부총종 추대법회를 봉행하오니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를 앙망하나이다

- 일 시 : 불기 2549년(2005년) 4월 16일 (음,3월 8일) 11시 정각
- 장 소 : 조동종 총본산 청련사 (종정 예하 주석사찰)
- 연락처 : 총무원 02)2062-0725. 청련사 02)379-6938, 3935

總務院長 朴心月(德潭)  
推戴法會 黃大隱(德牛)  
奉行委員長

## 奉行

### 曹洞宗 宗祖 大禪法師 東山堂 良价 大禪師 追慕齋

상보전에 귀의하옵고  
조동정종의 개산조이고 대선법사 이신 동산당 양개 대선사의 열반일을 맞아 추모재를  
다음과 같이 봉행하오니 전 종도스님 및 사부대중은 두루 동참하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 일 시 : 불기 2549년 4월 16일 (음, 3월 8일) 오전 11시 정각
- 장 소 : 조동종 총본산 청련사 (종정 예하 주석사찰)
- 연락처 : 청련사 02)379-6938, 3935. 총무원 02)2062-0725

불기 2549년 4월 8일  
大韓佛教曹洞宗 宗徒一同 합장